

美 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허용해야” 판결

수용 인원의 25% 이내, 찬송은 제한

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와 관련해 수 개월간 법적 싸움을 벌여 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들이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관 6명이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3명은 반대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트 판사도 이에 찬성했다.

고서치 판사는 “교인들이 모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 선창자(cantor)가 (방역을 위한) 가림막 뒤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고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브렛 캐버니,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도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찬송 등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이에 반대한 엘레나 카간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 당국은 훨씬 덜 위험한 세속적 활동과 같이 예배를 다뤄야 한다”며 “(실내 예배를 드릴) 권한은 전염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이 판결은 샌디에이고 지역의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패서디나에 있는 하비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하비스트락교회는 교회도 쇼핑몰 및 소매 업체와



미 연방대법원. ©pixabay

동일하게 수용 인원의 25%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브렛 카바노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와 더불어 찬양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며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장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성도 수를 0

명으로 제한한다는 주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해 관계에 대한 감사가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제9항소법원은 교회가 일시적인 금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실내 예배 모임 제한 명령을 뒤집어 달라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소송은 기각한다고 했다.

김 맥레인 워드로(Kim Mclane

Wardlaw)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우스베이의 예배 참석이 특히 바이라스 확산에 기여했다는 기록적인 증거는 없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종교 모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있다”고 밝혔다.

11월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샌디에이고 스트립 클럽 재개를 명령했다. 카운티는 예배와 학교는 대면 학습과 대면 예배를 지속해야 했다.

한편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뉴욕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 4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김동욱 기자

NCKPC 최병호 총회장 “백신 나왔으나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 예측”

PCUSA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최병호 총회장이 2일 총회장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창조적 목회를 지향할 것을 촉구했다.

최 총회장은 2021년의 목회 환경과 관련,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사역, 선교, 재정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된 창조적인 목회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최 총회장은 고린



최병호 목사 ©베다니장로교회

도전서 10장13절의 말씀을 인용, “회원교회와 사역 위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NCKPC는 지난달 21일 첫 임원 회를 열고 지난해 수입 및 지출을

결산했다. 연말 수입 결산액은 총 \$210,776였고,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은 재난구호금으로 총 \$82,000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지출액의 6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 총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회비가 예산의 56% 밖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교회들에게 \$82,000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회원교회들과 사랑의 손길들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최 총회장은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회년축제와 관련, “회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올해 5월 NCKPC총회 때 함께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2020-2021년 한해 동안 다양한 회년 세미나와 행사들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웨스트힐장로교회, 벨리 지역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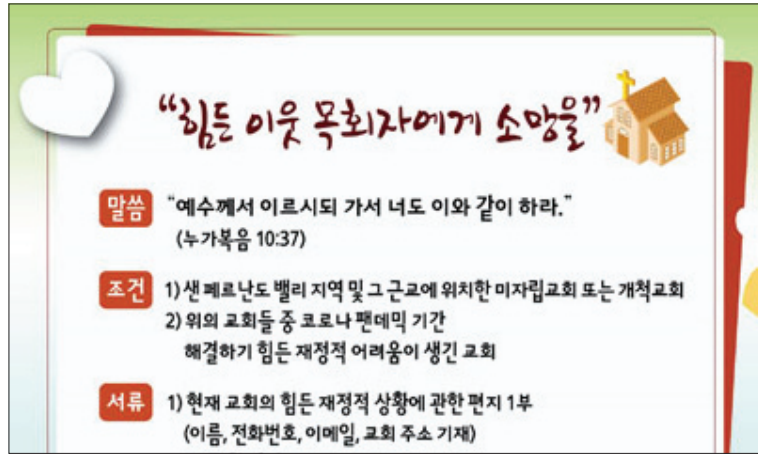
‘힘든 이웃 목회자에게 소망’ 프로젝트 진행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 www.iwhpc.org)가 코로나 펜데믹 기간 재정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기로 했다.

웨스트힐장로교회 선교사역원 & 지역사회사역원은 ‘힘든 이웃 목회자에게 소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가 위치한 샌 페르난도 벨리 지역 및 근교에 위치한 미자립

교회 또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한다.

웨스트힐장로교회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말씀을 붙들고 팬데믹 기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자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목회자들은 현재 교회의 재정적 상황에 관한 편지 1부(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교회주소 기재)와 최근 한 달간 교회뱅크 스테이트먼트, 목사안수증 사본 1부, 교회의 소속 교단 멤버십 증빙 서류 1 부를 3월 31일(수)까지 웨스트힐장로교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라스베가스 한인 여성 예배사역자 “병하” 첫 디지털 싱글 발표



첫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유일한 한인 여성 예배사역자인 “병하”가 자

신의 첫번째 디지털 싱글 “이미 날 살게하네”를 발표했다.

해마다 전세계에서 관광과 유희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 가운데 하나지만 이면에는 죄악과 쾌락이 만연한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사역자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쇼가 펼쳐지며 풍성한 음식과 도박, 갖가지 유희를 제공하는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세상에서 가장 황폐한 도시라 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메마르고 영적 사막과도 같은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예배, 간절한 기도는 이어지고 있다고.

그녀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경력도 없다.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은혜로 축복히 적시기에 충분하다.

병하는 필그림교회 찬양팀 싱어로 활동하며 라스베가스 웨이브 청년 연합집회, 원하트 한 여름 밤의 축제 등 다양한 찬양 집회 및 콘서트에 참여했다.



찬양사역자 “병하”

구세군나성교회, 제3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나누기 전개

2월 11일(목) 오전 10-12시, 구세군 나성교회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한인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던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사관

구세군나성교회(이주철 사관)가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어느 해 보다 따뜻한 온정이 넘쳤던 지난해 성탄절 자선냄비 기부금을 가지고 제3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나누기를 실시한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오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리아 타운에 소재한 구세군 나성교회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당 쌀 20Kg, K95 마스크 40장, 패션 마스크 10장, 손소독제 1박스를 증정한다. 육아 가정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용 마

스크도 받게 된다.

이주철 사관은 “지난 겨울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자선냄비를 향한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며 “제3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나누기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연일 1만 달러의 고액 수표가 기부되는 등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남가주 한인들의 온정이 이어졌었다.

문의: 213- 480-0714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오석재, 한인 목회를 하다(2)

뉴질랜드 헤밀턴 주사랑교회 한인 목회를 하다



오석재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1기 선교사역을 마친 후 오래 전부터 국제 스포츠 사역에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국 UW(Uncarted Waters) 미지의 물결 대표 되시는 팀 콘라드(Tim Conrad)씨의 국제 글로벌 스포츠 사역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2기 사역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선교부에서 아시아 책임 담당자로 사역하게 되었다.

이후 약 6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역하다가 개인적인 재정 문제 즉 선교비 조달이 해결되지 못해서 어렵게 사임을 하고, 뉴저지 본교단 모 한인교회에서 축구를 통한 사역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미주 고신 선교사 신분인 동시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말미암아 뉴질랜드 헤밀턴 주사랑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됐다.

헤밀턴 주사랑교회는 뉴질랜드 북섬 수도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헤밀턴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는 2번째로 큰 교회로 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교인으로 장년, 청년,

학생, 유년부 모두 합쳐서 약 100명이 넘어 오이는 교회였다.

주사랑교회에 부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회 경험도 전혀 없었고, 부목사 경험도 일년이 채 안 되는 사람이라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다. 더욱이 이민 목회는 어디로 될 줄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는 교단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목회를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이민 목회 상황을 보면서 배운 것과 과거 교회 평신도와 집사, 권사로 재직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목사의 지나친 권위주의 배격을 시작으로 교회 체질을 바꾸었다.

담임목사와 전도사의 사례비 차별을 최소화 하는 일, 교회 사역자

본지는 1970-80년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석재 선교사님의 신앙과 삶을 4회에 걸쳐 나눕니다. 오 선교사님은 1978년 축구 인생의 절정에서 위기를 맞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1980년대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축구를 통한 선교 활동을 펼쳤고 1989년 은퇴와 함께 예장고신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목회와 축구 선교를 병행했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유소년 축구팀을 양성하며 한국 축구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배모 유소년 Kopo 1 & Cibuni 2 팀의 친선 경기 전 모습

인 전도사와의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 즉 동일한 동역자 관계로 대우 하는 일, 목사가 교인들에게 먼저 대접하는 일, 교회 문제에 대하여 권위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말씀 공부, 기도회, 주일성수, 선교하는 교회로 목회 방향을 잡고 목회를 함으로 교회는 안정적인 분위기로 운영이 됨으로 인하여 은혜롭게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민 목회의 현실 속에는 이민 목회 한계를 경험하며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에게 목회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도 주셨다.

한번은 목회를 시작 한지 약 3개월이 지나자 한 권사님이 저희 부부와 심방을 하였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운동선수 출신인 목사님이 교회 담임목사로 오신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했고, 목회와 설교를 제대로나 할까하고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에 속으로 매우 당황한 적이 있다.

그 후 권사님이 저를 통하여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고 부족한 목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

또 한번은 다른 권사님께서 갑자기 목 근육이 굳어 말을 못하고 병원가시기 전에 저희 집으로 방문하여 기도를 부탁 하셨는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굳었던 목이 풀어지는 놀라운 치유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려고 다시 찾아 오셨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권사님은 저의 든든한 선교 개인 후원자로 협력하는 것을 볼 때 이것도 목회 사역에 큰 보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고 주일 출석을 거부하고 기본에 따라 마음에 안 들면 목사, 사모를 욕하는 별별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하는 현실에 속도 상하고 낙심도 되었지만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다가가기의 수도 없이 하며, 아내와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그때 그날들이 가끔씩 떠오르곤 한다

헤밀턴 주사랑교회에서 목회한 지 3년이 지나자 이민교회의 한계성을 느끼다 보니 다시 선교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 했을 때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생을 마감한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이 계속 부담감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인도네시아 계시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수라바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글로벌한 목회자를 찾는데 우리를 생각하며 연락이 왔다. 교회가 목회도 선교사역도 함께 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 해서 주사랑교회 교인들의 만류와 노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됐다. 약 10개월 만에 선교와 목회를 겸임하게 되었지만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에 몰입하기 위해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저는 선교를 위하여 세상의 명예도, 물질도, 가족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 선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인간이 무엇 이길래 남들이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해 볼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나! 하는 세가지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구선수로 명성을 얻게 하시고, 한국 최초 1호 스포츠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게 하시고, 마지막 목사로 목회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말은 “내 인생의 최고의 코치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할렐루야!(계속)

‘글쭈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의면하지 않았다

글쭈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대 대표), 송정영목사(복음선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대 대표), 신정민목사(복음선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관리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글쭈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늘 의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문물선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YUNDAI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3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8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믿으며 하는 이슬람권 선교운동(2)”

터키의 민족성은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정서다. 그들은 설령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도 어려운 형제를 위한 일이라면 명예를 택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2007년도에 필자가 처음 터키 선교를 시작할 무렵 터키 개신교인의 수는 6천 명 정도였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교역사는 2011년을 기점으로 터키와 중동 전역에서 일어났다. 난민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터키 안에는 2008년부터 이란 난민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들은 특이하게도 전쟁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때문에 터키로 들어왔다. 지금 터키 안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이란계 난민들이 들어와 있다. 그들 중 약 70 퍼센트는 개신교인들이다. 이란의 강경 이슬람 정책으로 인해 개신교도들을 향한 핍박과 순교의 피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신앙의 터전을 터키로 정했고,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런 그들을 터키 당국은 받아들였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까지도 인정해 주었다.

카스가 사역자가 되어 교회를 더욱 강성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여러 장기 선교사 가정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난민은 내전 때문에 생겨난 고난의 산물이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실아계신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는 그들을 이 땅의 선교사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다고 믿는다. 이사야 19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터키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더 늘었다. 그리고 시리아와 리비아 등의 난민들이 대거 발생한 것이다. 물론 난민들의 일부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으로도 갔으나 가장 많은 난민들이 모인 나라는 터키이다. 터키는 그렇게 자국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난민을 수용하였다. 비평하기 좋아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몇 사람은 터키의 난민 수용 정책을 폄하하는 자들도 있다. 직접 그 민족을 경험하고 그 땅을 밟고 그들 가정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며 체험한 필자의 생각은 터키는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 선택한 민족, 그리고 땅이라는 믿음이다.

터키는 중동의 미국이다. 각 민족들이 들어와 미국이라는 큰 샐러드볼과 같은 나라를 구성한 것처럼 터키는 중동의 모든 민족이 들어와 각기 그들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터키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 난민인 그들은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난민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가? 내전을 활용하여 난민이라는 민족 대이동을 일으킨 하나님이 그 난민 민족을 세계 교회의 개척자로 삼으신 것이다.

현재 터키 안에는 개신교의 선교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란의 난민들이 터키의 주요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갑바도기아에는 천명의 성도가 있는 이란 교회가 있다. 그곳에선 매주일 세례식이 열린다. 시리아 난민들도 도시 곳곳에서 교회를 일으킨다. 터키의 각 도시에 있던 터키인 현지 교회들로 시리아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강력한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다. 말씀과 능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미 터키 안에는 다민족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들이 많아졌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국인 예배 리더십들이 그들의 예배를 이끈다. 하나님이 지금 한인선교단체와 교회 선교사들을 저들의 예배 리더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이슬람권 선교단체나 선교사들, 단기선교팀들을 오해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주의 교회들이 선교지를 향해 일어서기를 바란다.

2007년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말라티야 지역도 순교자 티만 선교사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와 아들 루

필자는 지금 사역지인 멕시코와 남미의 교회와 청년들이 우리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 함께 열방을 나갈 것을 기도한다. 더 나아가 멕시코의 청년들 중 세계적 선교의 리더십들이 배출될 것을 꿈꾸고 있다.(계속)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④ “다메섹도상”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바울 시대에 다메섹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바울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나아가 세계 교회사에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창15:2)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스테반 순교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돌에 맞는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스테반과 예수 추종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훼손하는 악한 세력들로 보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바울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대표 족속이 아람입니다. 알려진 아람들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창25:20), 야곱의 아내들이 아람출신입니다. 군대장관 나아만도 아람, 특히 다메섹 사람(왕하5:12)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 왕 하닷과 전쟁을 벌일 때 아람은 소바왕 하닷을 도우려 하다가 다윗에게 크게 패하고(삼하8), 아합은 아람과 전쟁(왕상22)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자신의 사도성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세 번씩 설명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다메섹을 이방의 대표로 간주합니다. 이사야는 다메섹 멸망을 경고(사17:1-3)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메섹의 심판을 예언(렘49장)했고, 아모스는 다메섹의 죄를 지적(암1:3-5)했습니다. 스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방 땅에도 있음(스9:1)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다메섹은 시리아 즉 아람의 수도이자 이 지역 중심도시였습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그가 거주한 지역이 아람 즉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대표 도시입니다. 다메섹도 창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걸어서 옛새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국제적인 도로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었습니다. 또 다메섹에는 안티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 내려오는 나아르 바라다(Nahr Barada,아미나)강과 도시 남쪽에 나아르 엘 아와이(바르발)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들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보다 더 맑다며 분노했던 강들(왕하5:12)입니다. 이 두 강도 다메섹에 중요한 교통의 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은 정치와 경제 중심도시였고, 나아가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9세기에 다메섹에는 하닷 신을 숭배하는 아람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닷은 폭풍과 다산의 신으로 다메섹 수호신이었습니다. 로마정부는 주후 1세기에 아람신전에 주피터 신전을 혼합하여 더 큰 신전을 만들어 다메섹을 로마정부 종교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주후 4세기에 하닷과 주피터 신전은 성 요한 성당이 되었고, 이슬람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8세기 초에는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섰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23장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다메섹에 거주했던 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아나니아 기념 교회가 다메섹에 있습니다. 다메섹 성벽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것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다메섹은 바울이 핍박하러 갈 때부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변화된 바울의 적극적 전도로 다메섹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한동안 다메섹은 기독교 도시였다가 이슬람에 정복당합니다.

A.D. 7세기 후반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걸출한 교회 지도자가 다메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전통 신앙론”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동방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서방교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견줄 만한 작품입니다. 요한은 다메섹이 강력한 이슬람 영향권 아래 있을 때, 다메섹에서 성장하여 건실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동방교회 신학과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 변증가 요한을 배출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오레곤 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교회 건축될까?

조 워들로우 목사, '트레일의 엔드 로그 교회' 기금 마련 중

오레곤 주의 한 목사가 가장 큰 목조 교회 건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조 워들로우(Joe Wardlow)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다 읽은 후 기도를 드렸다. 그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워들로우 목사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리건주 올리곤시티 비버 클리크 로드 인근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큰 통나무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 기금은 온라인 모금과 기업 기부를 통해 마



컴퓨터로 안성된 교회의 전경을 연출했다. ©Trails End Log Church

련했다.

교회의 이름은 '트레일의 엔드 로그 교회'(Trail's End Log Church)이다.

워들로우 목사는 교회 건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교회 건축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은 1,970만 달러로 추정되며, 현재 워들로우 목사는 교회를 세울 부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260만 달러를 모금 중이다.

그는 “주님께서 제게 그 비전을

주신 지 약 14년이 지났지만, 몇 달 전까지 문을 열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다”며 “완공되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나무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성경에는 향나무를 언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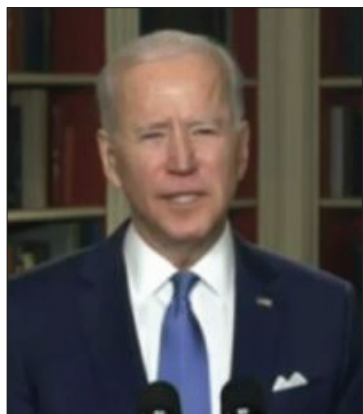
구절이 많다. 다윗은 향나무로 성전을 지었고, 그곳은 언약궤가 있던 곳이기도 했다. 향나무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라고 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교회에는 여러 층과 건물이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 예배당, 행정동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워들로우 목사는 교회 건축을 위해 다양한 지도자협회와 협력 중이다. 여기에는 에티오피아 선교사, 은퇴한 루터교 목사, 미군 전공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사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부동산, 통나무 건설 회사와의 연력 및 부동산 활용 등이 모두 시간 안에 가능하게 됐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바이든,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신앙,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여”



조 바이든 대통령 ©뉴스네이션 나우 유튜브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비난하고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맞서 싸우며 단결하자고 촉구했다고 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영부인 질 바이든을 위해 기도해준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역대 두 번째 가톨릭 교도인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 시작된 이러한 성찰과 친교 행사가 지속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폭력”이라며 “우리는 이제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에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난했지만 지난해 여름 미국 주요 도시를 휩쓸었던 급좌파 집단인 안티파(Antifa)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가한 폭도들로 인해 20명이 넘는 시민이 살해되고 20억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일질 언급하지 않았다고 CP는 전했다.

대통령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미국이 처한 불안정한 정치 환경,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그에 따른 경제 하락, 인종 정의 요구,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을 언급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두운 시간이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그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앙이다. 신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저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신앙은 희망과 위로를 주었다. 명료성과 목적도 주었다. (신앙은) 하나의 국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은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 미국인이자 사람이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 미국인이자 사람이다. 민주당

원과 공화당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동료 미국인이자 사람”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순간 우리는 소심해지거나 피곤할 수 없다. 할일이 너무 많다”라며 “성경은 ‘저녁에는 기쁨이 오리다’라고 말씀한다. 우리 앞에는 견디기 힘든 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함께 견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어둠을 통과해 빛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다.

국가 신앙 기반 옹호 단체인 가톨릭 보트(CatholicVote) 브라이언 버치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과학적인 트랜스젠더 (행정) 명령과 전 세계 낙태 자금을 대한 매우 인기없는 결정(멕시코 시티 정책 금지)을 포함해 신앙인들에 대해 그의 행정부가 취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를 무시했다”라고 비난했다.

버치 회장은 “결혼, 가족, 종교 자유, 태아 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악을 진전시키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선전했지만 일부 가톨릭 지도자들로부터 낙태에 대한 지지 행보로 인해 비판받았고 CP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美 산부인과, 낙태될 뻔했던 ‘9만 명’ 구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산부인과가 지난 30년 동안 낙태될 뻔했던 아이들 9만 명을 살려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레스턴우드임신센터(Prestonwood Pregnancy Center)를 운영 중인 리니 제미슨(Leanne Jamieson)은 CBN 뉴스 프로그램인 ‘기도링크’에 출연해 “여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도록 설득해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나 부부가 우리 센터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를 거룩한 약속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그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로 소망을 찾고 있다. 그들은 이 같은 환경에 놓인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때로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치열한 문제를 마주하기도 한다”고 했다.

제미슨은 “직원들은 정말 좋은 경청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다.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경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녀는 “임신지원센터는 매우 특별한 사역 분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그만큼 많은 것을 제공한다. 임신테스트와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고, 그 여성이나 커플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제미슨은 임약 조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모든 아기는 태어날 운명을 갖고 있지만, 모든 생모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플라노에 있는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 책 그래함 목사는 1991년 이 센터를 설립했다. 그래함 목사는 앞서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설교한 후 플로리다에 임신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그래함 목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 45주년을 2018년, CP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낙태를 강요받는 모든 여성이 우리와 같은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낙태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해결책에 눈을 돌리는 여성들의 수는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프레스턴우드임신센터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돕는 것 외에, 돌봄을 원하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한다.

제미슨은 “우리는 매년 수천 번 복음과 관련된 대화를 한다. 400명이 훨씬 넘는 여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작년 프레스턴우드임신센터는 ‘가족계획연맹’이 운영하는 낙태 클리닉 건너편에 델러스 사무실을 새로 열었다.

이미경 기자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출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디.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밝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SBC 총회장,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자제 요청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 kamalaharris.org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이세벨(Jezebel)’이라 표현하는 목회자들이 생겨나자 교단 총회장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J.D 그리어(J.D. Greear) 총회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 목회자들이 우리의 부통령을 이세벨로 부르거나 비교하는 데 있어 특정 인종적 고정관념의 역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발언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책을 비판할 때가 있지만, 여기에는 새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우리는의를 위해 명확하고 담대하게 말하되, 성경이 당부한 우리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하지”면서 “죄로 죄악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의 이번 성명은 교단 집행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스티브 스와포드(Steve Swofford) 등 일부 교단 목회자들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스와포드 목사는 텍사스 주 록월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설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기능 장애(cognitively dysfunctional)”가 있다고 언급하며 “만일 그(바이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세벨이 떠맡게 될 것이다. 이세벨 해리스, 그게 그녀의 이름 아니었는가?”라고 지칭했다.

앞서, 같은 주의 린데일 제1침례교회를 이끄는 톰 벅(Tom Buck) 목사도 지난달 23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자신의 딸들이 이세벨이 권력을 가진 여성이란 이유로 그녀를 ‘염감을 주는 역할 모델’로 보길 원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

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상적인 역할 모델로 “민족이나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그들의 입술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왕비로 바알신 숭배 등의 악행을 저질렀으며, 주로 살인자나 매춘부, 또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 이름이 미국의 노예 시대에 백인과 흑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몰라토(mulatto)’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는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 태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 정치인이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해리스는 1994년부터 95년까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30세 연상인 윌리 브라운(Willie Brown)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연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브라운 주의회 의장이 아내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고, 급기야 2019년 1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그녀의 유세 현장에는 “윌리 브라운의 매춘부(Willie Brown’s ho)에게 안 된다”고 전해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이후 벅 목사는 해리스를 이세벨로 지칭한 이유가 그녀의 인종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벅 목사는 “내가 지적인 문제는 그녀(해리스)의 불경건한 성품에 있다. 그녀는 가장 급진적인 낙태 찬성 부통령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급진적인 LGBT옹호자다. 그녀는 최초의 레즈비언 결혼식 중 하나를 주례했다”며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칭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연숙 기자

“미국 내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히 유효”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가 5일 ‘부정 선거 문제와 음모론의 광기와 (의사당)반란’이란 글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재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생각을 가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심각한 선거 사기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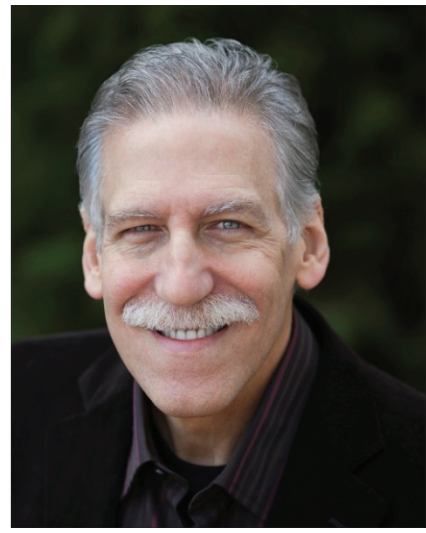
그는 부정선거 문제 제기자가 “과격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며 “추리력이 사라진 트럼프의 칼트 추종자로 무시하거나 허황된 음모론자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선거의 최종 결과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법원 시스템과 의회, 우리의 열렬한 기도를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그러므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 의사당 습격은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믿음이 도화선이 되었다”며 “수많은 합리적인,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이 광범위한 (선거)사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음은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진행하는 A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랜드 폴 상원 의원에 대해 “그는 트럼프의 하수인이 아니며, 우익 극단주의자도 아니”라며 “그 역시도 사기 주장에 대한 주류 언론의 노골적인 기각(outright dismissal)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폴 의원은 인터뷰에서 “부정이 있



마이클 브라운 박사 ©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발표도 들은 것이 없다”며 “대부분의 주장이 원고부적격(lack of standing)이라는 이유로 퇴출됐다”며 의문을 던졌다.

브라운은 또 “같은 방식으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에 트럼프가 압승했다는 주장이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했다”며 “그도 역시 대답할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우려는 묵살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내가 말한, 조 바이든이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앞장서야 한다는 이유”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해야 한다”고 검증을 촉구했다.

강연숙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LA백송교회
김성식 담임목사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LA씨티교회
씨니김 담임목사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LA세계선교회
장태원 담임목사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말라), LA, CA 90020

New Church
최순환 담임목사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갈릴리선교회
한천영 담임목사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갈보리민음교회
강진용 담임목사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아 김 담임목사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담임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박현성 담임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나성제일교회
차성구 담임목사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올림픽장로교회
정정수 담임목사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청운교회
이명수 담임목사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한마음제자교회
곽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한샘교회
이순환 담임목사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한우리장로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LA 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갯스월연합교회
이희철 담임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남가주새소망교회
김성환 담임목사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담임목사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조영철 담임목사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한국 동성애 유흥업소 마스크 안 쓴 채 신체접촉에 즉석 성관계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서울 지역의 한 게이바



염안섭 원장이 잠입 취재해 촬영한 동성애자들의 모임 현장 사진 일부. ©레인보우리턴즈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오고 있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인 모임 실태를 고발했다.

염 원장은 3일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염 원장은 "현재 코로나 방역 때문에 유흥업소, 유흥주점 등은 영업을 불가하다. 그런데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유흥주점에서 정모라는 형태의 불법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며 "목숨 걸고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정모를 하겠다는 광고를 한다"며 "시간과 장소 회비를 올린다. 대부분은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고, 이 돈을 내고 정모에 들어간다"고 했다.

염 원장이 공개한 세 장의 사진에선 약 30여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공간에 모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들의 모습도 다수 있었다.

송경호 기자

염 원장은 "여기 모인 사람은 여자는 한 명도 없고 전원 남자다. 여자 옷을 입고 있는 이는 여자 역할을 하는 게이"라며 "아주 요사스럽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로 만지고 신체접촉을 하고 춤추고 음식도 뷔페식으로 차려냈다. 술도 박스로 가져다두고 무한정 공급했다"고 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에어컨 옆 공간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문이 있고 작은 방이 있었다. 즉석 성관계를 하는 장소"라며 "술 먹고, 음식 먹고, 춤추고 노래하다 눈이 맞으면 저 공간에서 즉석 성관계를 한다. 마이크 하나로 노래 부르며 누구도 소독하는 사람이 없다. 비말을 통한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염 원장은 "인터넷 동성애 커뮤니티에 정모 광고가 하루에만 수십 개 이상이 뜬다"며 "기독교계 전체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매도되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지만, 게이클럽을 통한 코로나 대학살은 이미 우리가 수 차례 겪었다.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인터콥 "백신 맞지 말라는 것 아니라, RNA 백신 맞으라는 취지"

DNA 백신 지적 발언, 네이처 논문 근거 제시



RNA 백신을 맞으려던 영상에서 최바울 선교사가 강의하는 모습. ©유튜브

인터콥선교회 측이 최바울 대표의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이들은 "한 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오른 최바울 대표의 설교영상에서 'DNA 백신이 유전자를 바꾼다'고 한 발언은 2008년 Nature Reviews Genetics에 발표된 논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https://www.nature.com/articles/nrg2432).

이 논문에서는 "DNA 백신이 인체 내 세포의 DNA로 통합돼 돌연변이 유발, 염색체 불안정, 종양 억제 유전자의 비활성화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FDA)에서는 DNA 백신의 인체 실험 전 동물 실험을 요구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콥 관계자는 "이 논문은 2008년 발표된 후, 현재까지 602번 인용됐다"고 소개했다.

또 "최바울 선교사는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가 있기에 비싸더라도 DNA 백신이 아니라 RNA 백신을 맞으라고 한 것"이라며 "최 선교사는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https://youtu.be/LRhu578pPT4).

이대웅 기자

Advertisement for Torres Joon Church (토레스 조은교회) featuring Pastor Kim Woon-jun (김우준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ornerstone Church (Cornerstone Church) featuring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and contact information.

O.C., 엘바인 지역

Advertisement for CMF Church (CMF선교회) featuring Pastor Kim Gil-min (김철민 장로)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lborei Saesung Church (갈보리새생명교회) featuring Pastor Min Seung-gi (민승기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sahan Church (감사한인교회) featuring Pastor Gu Bong-joo (구봉주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gaegu Benel Church (남가주 벨엘 교회) featuring Pastor Oh Byung-gi (오병익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gaegu Dongshin Church (남가주동신교회) featuring Pastor Baek Jeong-woo (백정우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gaegu Sunbok Church (남가주순복음교회) featuring Pastor Lee Il (이 일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gaegu Saesom Church (남가주새소망교회) featuring Pastor Kim Seung-won (김성원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ext Love Church (NEXT 사랑의교회) featuring Pastor Wang Sang-woon (왕상운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LA Immanuel Church (LA 임마누엘교회) featuring Pastor Choi Seon-gil (최순길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ulpurunsong Church (늘푸른선교회) featuring Pastor An Chang-hoon (안창훈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gaegu Nulsarang Church (남가주늘사랑교회) featuring Pastor An Sang-ho (안상희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a Gamsa Church (다 감사교회) featuring Pastor Kim Il-gwon (김일권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ownside Church (다우니제일 교회) featuring Pastor An Seung-bok (안성복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Laguna Hills United Methodist Church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featuring Pastor Lim Hak-soon (림학춘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ijubi Church (미주비전교회) featuring Pastor Lee Seung-woo (이서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Bethel Church (베델교회) featuring Pastor Kim Gwan-yo (김관요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aemul Church (샘물교회) featuring Pastor Jeong Gi-seung (정기성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lbain Eunuri Church (엘바인은누리교회) featuring Pastor Park Seung-woon (박성운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lbain Chirre Church (엘바인 침례 교회) featuring Pastor Han Ki-hong (한기흥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Orengi Kaito Church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featuring Pastor Nam Seung-woo (남성우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unhyehan Church (은혜한인교회) featuring Pastor Han Ki-hong (한기흥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ongnam Church (좋은마을교회) featuring Pastor Shin Won-gu (신원규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mgeon Church (함께 걷는교회) featuring Pastor Park Hoon (박훈 담임목사)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ido Daily News (기독교일보)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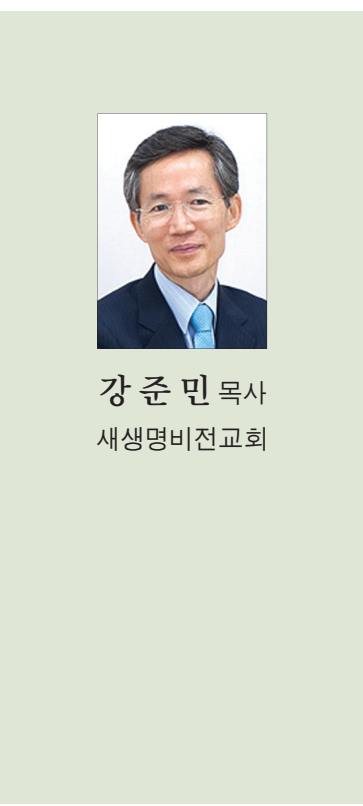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고요를 가꾸는 지혜

저는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조용하고 잠잠한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너무 분주한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 영혼은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빠르고 산만하면 영혼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는 길은 정기적으로 멈추어 고요를 가꾸는 것입니다. 고요를 가꾸는 지혜는 영혼을 조율하는 지혜입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영혼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 주어야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고요를 가꾸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고요를 가꾸기 위해서는 고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고요에 관심을 갖게 되면 고요의 세계가 열립니다. 고요에 관심을 갖게 되면 고요를 좋아하게 되고, 고요를 사랑하게 됩니다. 고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고요가 주는 유익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요는 우리 삶을 풍성케 해 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요를 가꾸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침묵하는 중에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면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부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고요를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안식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만들어낸 짐은 미움, 원망, 우울, 실망, 좌절, 그리고 복수심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마 11:28).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육체적 안식과 함께 마음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마 11:29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안식을 누리게 되면 육체도 더욱 건강해 집니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맺는 풍성한 열매들 중에 세 가지 열매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요한 평강입니다. 평강은 고요 속에 깃들입니다. 평강은 염려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염려는 고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이해하고 염려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염려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염려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마 6:27). 염려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러옵니다. 염려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이 나누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불안을 친구로 삼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나누인 상태입니다. 나누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한 마

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요한 평강은 한 마음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벧전 5:7).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빌 4:6-7).

둘째, 고요한 지혜입니다. 고요한 통찰력입니다. 고요한 분별력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됩니다. 고요한 호수는 맑습니다. 밝습니다. 맑고 밝아지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고요한 호수는 낮에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품습니다. 밤에는 어두움을 비추어주는 달을 품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이 맑고 밝아지면 놀라운 지혜들이 조용히 임합니다.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고요를 가꾸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고요는 하늘의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셋째, 고요한 열정입니다. 열정은 성취의 비결입니다.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열정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열정은 위험합니다(롬 10:2).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열정은 파괴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아쉽게도 뜨거운 열정은 쉽게 식습니다. 빨리 핀 꽃이 먼저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열정은 절제된 열정입니다. 푸른 열정입니다. 시작한 것을 지속하고 완수하는 열정입니다. 고요한 열정의 친구는 성실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요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시끄럽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고요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고요는 고요를 낳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 질 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요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페루를 향한 정진용 선교사님의 열정

금요일 밤에서 화요일까지 코스타리카의 4박 5일은 꿈처럼 빨리 흘러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제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선교사님의 귀여운 딸 서현이의 모습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페루에서 다시 보자”고 우리 선교팀원들은 기약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고역입니다. 2021년 1월 29일(금) 오후 우리 선교팀 4명은 박수영 선교사님 부부를 뒤로하고 멕시코를 떠나 밤늦게 코스타리카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대회 이후 오랜만에 보는 정진용, 김가현 선교사님 부부를 보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선교사님의 외동딸 서현이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쾌활한지 모두가 그 재롱에 매료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사님들이 챙겨준 서현이 선물과 교육 재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훈련과정을 직접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진용 선교사님 부부는 2018년 페루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코스타리카에 소재하는 선교사를 위한 여학원에서 서반아어를 공부하였습니다. 2년 동안의 여학 공부를 하는 것이 선교단체의 일반화된 규정입니다. 그동안의 여학훈련 사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월 31일 주일 아침에는 폰타 모랄레스(Punta Morales)에 있는 “빛의 오아시스교회”(Iglesia Oasis de Luz)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거주지인 수도 산호세(San Jose)에서 3시간을 북방으로 나아가 니카라과 국경 인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정진용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학훈련에 거의 마친표를 찍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단 선배이신 조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할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세례교육을 하는 조 선교사님을 부부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공항에 가까운 라포르투나(La Fortuna) 인근의 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레날 화산 근방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코로나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하루 동안 일정이 길어지면서 선교사님 가족과 교제의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스타리카를 떠나기 전날인 2월 1일 월요일 저녁에는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진용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김가현 선교사님, 서현이 그리고 우리 팀 4명이 숙소의 침대와 의자에 앉아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진용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20장 22-32절을 중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는 결연한 페루행을 기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진용 선교사님 부부가 페루로 나가려는 열정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면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처럼, 정진용·김가현 선교사님 부부는 페루의 상황이 위중함을 알고도 3월의 페루 정탐과 6월의 페루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학훈련 기간인 2년이 채워지는 때입니다.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3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님 부부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울을 험지로 보내는 에베소 장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2

영성 개발에 관한 오해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만, 우리는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며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자칫 스스로 메시아라거나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사상으로 변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하고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듯 하다고 말할 뿐이다.

3) 초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힌두교의 구루들처럼 일종의 “신령”이 된다거나 “활불” 즉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른 바 “오체투기”라는 것을 감행한다. 사원이 있는 곳까지 수 개월에 걸쳐서 다섯 발자국을 걷고 한번 땅에 온 몸을 엎드리고 다시 다섯 발자국을 걷고 엎드리면서 그 먼 거리를 고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약하고 유혹에 취약한 존재들이다.

4)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 자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며, 다만 영성개발을 통해서 보다 성경에 부합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대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상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이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다. 진정한 영성은 종교 예식과 형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5)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위선자, 이중인격자, 심판자가 되기 쉽다. 스스로 죄에서 분리된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에 종교와 삶의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야 한다(마 5:16).

영성개발의 긍정적인 의미

1) 간단히 말해서 영성개발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한다. 즉 영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

하게 맺힐 때에 그의 영성을 이 해하게 된다.

2) 전인격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과 외모 또는 종교예식에서 드러나는 경건함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서 사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변화,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사역, 그리고 정신적으로 은유함과 오래 참음 등 모든 측면이 관련된다.

4) 이것은 한 사건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긴 과정이며 지름길이 없다. 성도는 종종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영적으로 예민한 때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진정한 영성으로 이 해한다.

5) 신속한 영적 성숙을 위한 어떤 기술이나 방법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의 제자훈련 과정을 거친다거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6)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즉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7)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고후 3:18, 엡 4:13, 골 3:9-10). 진정한 용서는 자기가 용서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Robert Mulholland 박사는 영성개발이 “자판기”가 작동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판기에 일정한 금액의 동전을 넣고 물품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원하는 물품이 나오면 만족해 하지만 나오지 않으면 기계에 발길질을 하고 다른 자판기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얼 요구하고 곧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발길질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이고 만족한 어떤 형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계속)

- 1) 주의 인격과 사명과 사역을 닮아가되 개인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하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그대로 닮는 것이 아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소위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상한 몸짓을 하는 것을 흉내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 2)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목회자료
 마그네틱 메모
 목회일기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신앙여인의 모범

잠언 31:10-3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언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나니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신업이 꺾이지 아니하겠으며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 밭을 간판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17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18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19 손으로 솜뿔치를 들고...(중략)...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7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28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나니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에서 시작하여 자녀가 더해져서 구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 받게 되는 아내는 어떻게 행하는 자인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된 반쪽이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1. 현숙한 여인의 가정경제생활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언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질고 깨끗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귀한 보석인 진주보다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신앙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소망이 무르익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에 육신의 남은 때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며 일하게 됩니다.

11-13절에 이 여인은 남편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인격이

그 남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14-17절에 현숙한 여인은 참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집안의 일꾼을 모아 자기가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을 먹고 하루에 할 일을 일꾼들에게 분담시킵니다. 하루 동안 부지런히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맡기므로 일꾼들이 탄 짓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은 근검절약하면서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일으키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경제적 힘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는 건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18-20절에 그녀는 하나님을 섬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므로, 더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펴 줄 모릅니다. 밤낮 자기가 잡은 것을 농칠까봐 힘을 다해 손을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밤낮 손에 쥐고있던 잡고 떨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현숙한 여인의 가족 섬김

21절에는 “그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흥색 옷을 입혔습니다. 흥색 옷은 왕이나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은 이중 천으로 되어 그 사이에 솜을 집어넣어 만듭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눈이 와도 옷이 따뜻하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22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방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방식은 자신의 지위를 말합니다. 즉, 자기 지위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계절에 맞게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세마포를 입고, 겨울에는 자색 옷을 맞추어 입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23절에 남편 내조에 대해서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와 시비, 강탈에 대해 판결해 주는 법원의 역

할을 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남편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내조를 잘 한 것입니다. 남편을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함으로써 인해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올려놓게 됩니다. 남편이 어디에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면, 아내가 되는 여인은 아무개의 사모님이란 존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은교회의 모든 딸들은 자기 남편을 험담하거나 낮추어 욕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기에 남편이 낮아지면 그에 소속된 아내도 덩달아 비천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 그 아내 역시도 당연히 그 지위가 올라갑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27절까지는 남편의 지위를 높인 후에 다시 열심히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로 옷을 지어 팔고, 가정의 산업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솜을 잡고 가락을 뽑아서 실을 가지고 베를 만들어 무역하는데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팔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근면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보상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향하여 최고의 어머니이며,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를 향한 칭찬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고생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 얼굴뼈를 깨고, 다른 곳의 살을 뜯어다 붙이는 성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치레보다 속사람인 영적신앙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런 일입니까?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열매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성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행복하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편을 신앙인격으로 잘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남편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아내 역시도 거기에 따르는 대접이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신앙 인격적 수양으로 양육하여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자자손손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어린아이의 죽음과 신들러의 회심

목회자 자녀인 양부모가 저지른 정인 양 학대치사의 의미

신앙 양심 되살리기보다 이미지 실추 염려 언급 꺼리는 듯 바닥까지 떨어진 기독교계 신앙 양심 세간 인식 더 악화돼 방향한 벼락부자 신들러조차 방관자로서 죄책감 느꼈는데 교회 지도자, 신자들 정인 양 양부모 죄악에도 방관자 자처

◆신학과 회심: 신들러가 목격한 어린이의 살해 장면

영화 <신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에서 실존 인물인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리암 니슨 분)는 원래 유대인 노동자들의 생사와 처우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이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사교성과 인맥, 그리고 뇌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방향한 벼락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던 그가 윤리적 각성과 비약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한 유대인 어린이,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부터다.

1943년 3월, 독일군은 폴란드의 중심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크라쿠프(Kraków)에서 유대인 계도로 강제로 이주돼 있던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소로 끌고 간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자들과 병든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을 당한다.

신들러는 이 극악한 학살의 현장 한가운데를 부모의 행방도 모른 채 공포에 젖어 돌아다니는 한 소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극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독일인들의 집단적 광기가 벗어난 비인간적 살인과 폭력의 현장에서 자신 역시 한 사람의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그 불의의 장면을 지켜 보기밖에 할 수 없는 방관자로서 극한의 가책을 느낀 것이다.

이후 신들러는 수용소 내부에서 독일군 병사들이 유대인 사망자를 소각할 때 수백, 수천의 학살당한 이들 사이에서 이 어린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커다란 슬픔에 압도되며, 무거운 죄책을 견디다 못해 자

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살리겠다고 결심한다.

<신들러 리스트>의 이 유명한 회심 장면에 대해, 영화가 개봉된 1993년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일반 예술비평, 윤리학, 문화철학, 그리고 신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시도했다.

존 데이븐포트(John J. Davenport) 같은 연구자는 신들러의 윤리적 각성을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한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의 비약에 대비해 이해하려 시도한다.

사라 호로위츠(Sara R. Horowitz) 같은 연구자는 신들러의 윤리적 각성 장면 안에 성경의 '돌아온 탕자' 모티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고 평한다. 신들러의 회심 장면을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에 대비해 설명하는 연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만일 본회퍼가 생존해서 이 영화를 봤다면, 신들러의 회심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영화에서 신들러의 회심이 일어난 크라쿠프 소개작전이 실행된 시기가 1943년 3월이다.

이 시기는 본회퍼가 반나치 운동 때문에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된 시기(1943년 4월)와 거의 일치한다. 본회퍼는 과연 이 시기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을 알고 있었을까?

본회퍼의 옥중서간집 <저항과 복종>의 내용과 어조로 보서는 그 역시 소문을 통해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본회퍼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느끼는 실망감은 이



기독교인 양부모의 학대로 죽음에 이른 정인 양의 입양 전후 모습. ©유튜브

만저만이 아니었다.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거의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본회퍼가 비종교화(dereigionization) 원리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시기가 바로 이 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옥중에서 독일인들의 광기에 찬 범죄 현실을 목도하면서 '미친 자의 운전대'와 함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의 관점에서 볼 때, 파격적이라 할법한 주장을 내세웠다.

◆신학과 비종교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물론 본회퍼는 이미 <성도의 교제>나 <행위와 존재>와 같이 그의 전기사상을 대표하는 저서에서 역사적 실존 현실을 이루는 인격 간 관계를 하나님의 계시 행위로 지목하면서 계시의 참된 의미를 현대 독일인들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신학적 동기 측면으로 볼 때 성서해석학자 볼트만이 주장했던 비신화화 원리와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것이기도 했다.

본회퍼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단정하는 '순진한 무신론'에 대한 옹호가 아니었다.

애초 <행위와 존재>에서 대상을 통한 존재론적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놓고 하나님 존재 여부를 논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내적 모순이며, 본회퍼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본회퍼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는 신앙을 주장한 의도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고 자고 하는 독일인들, 그러면서 타자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범죄를 자행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독일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폭로하려는 데 있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신들러와 같이 기독교인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윤리 실천을 감행하는 이들이 더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

던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지 이웃으로 규정하고 죽어가는 이를 살린 사마리아인을 참된 이웃으로 규정하셨던 가르침(눅 10:25-37)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어난 정인 양의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들러의 회심과 본회퍼의 비신화화 원리를 되새기며 교회 현실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목회자 자녀들이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이자 말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저질렀고, 그 결과 아이가 온몸이 부서진 채 죽음에 이르렀다. 기독교인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이 악랄한 범죄에 대한 한국교회 전반의 반응은 어떠한가?

신들러나 본회퍼에 비교해 본다면, 정말이지 미적지근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사안의 심각함을 절감하고 신앙의 양심을 되살리는 회심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기독교계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언급을 최대한 꺼리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런 회피의 태도가 그렇지 않아도 바닥까지 떨어진 기독교계 전반의 신앙 양심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듯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신들러 리스트>에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는 방향한 벼락부자조차 어린아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독일인들의 모습에 방관자로서 무한한 죄책을 느꼈다.

반면 한국교회 못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어린아이를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한 교인 부부의 죄악을 바라보고서도 스스로 방관자를 자처하며 "그건 내 책임, 혹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내세우는 듯하다.

정인 양 학대치사 사건은 결과적으로 보서는 분명 그들 개인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자애롭게 보살피려 하려는 인지상정조차 짓밟아 버린 그런 잔혹한 범죄가 목회자 자녀들에 의해 자행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은 처참히 무너져내린 한국교회의 신앙 및 윤리교육의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일은 개인의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전반의 신앙의 후회할 문제로 연결된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전반이 목회자 및 목회자 가정의 비위와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보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역자와 그 주변인들이 저지른 각종 월권과 현금 횡령, 그리고 성범죄 등에 대해 무마로 일관하는 습관이 굳어져 있다.

또한 이런 관대함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교역자의 죄악에 대한 판단을 터부시하는 구약적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에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리들이 거저된 신앙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또 적용되어서도 안되는 것들을 외면해 온 역사 역시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합당치 못한 반지성적 처사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교회 내부의 자정기능은 무력화되고 오로지 교회 바깥의 사람들, 무신론과 유토피아에 경도된 이들의 판단과 지원에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이는 그 원인을 따졌을 때 다른 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한국교회 스스로의 잘못이다.

신앙의 양심은 외면하고 이미지 포장에만 치중해온 결과,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손으로 자행된 흉악범죄조차 예방하고 다스릴 수 없는 무능력의 탓에 빠져들고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반나치 운동 때문에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된 본회퍼가 수감되었던 감옥. ©thebonhoefferprojec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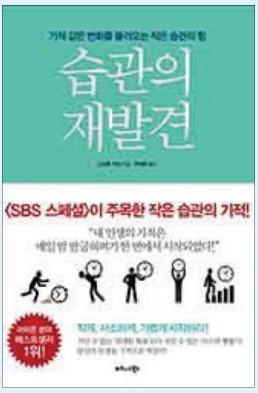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크라쿠프 소개작전 중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는 어린아이.



정인 양 학대치사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정에 등장한 양부 안 모씨. ©유튜브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바꾸는 것, 사소한 행위 억지로라도 매일 해보라



습관의 재발견 스티븐 기즈 | 구세회 역 비즈니스북스 | 240쪽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은 당신이 늘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인가?

'목표'는 언제나 크게 세워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뿐이다!

모든 기적 같은 변화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사소하지만 강력한 '작은 습관'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 좋은 습관 바탕으로 일상생활 하기 어떤 습관 가지느냐가 인생을 좌우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잡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책 D. 하지는 《습관의 힘》에서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아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한 사람이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즉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말했다. "습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습관은

이렇게 중요하다.

습관이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습관은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 내 몸에 습득된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내 몸에 습득되기 전에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 《습관의 재발견》이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기즈는 블로그 '딥 이그지스턴스(Deep Existence)'를 운영하는 미국 파워블로거이자 자기계발 전문가다.

저자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자기계발 및 습관 만들기에 관한 통념을 거부하며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알맞고 '실천 가능한' 습관전략으로 '작은 습관'을 제시한다.

작은 행동에 담긴 인지심리학 및 뇌 과학적 원리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기계발 전략이 왜 그토록 실천하기 버거운지 그 이유를 밝혀준다. 또한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일정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는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전략이다. '동기부여'나 '대단한 결심', 혹은 '무조건 시작하라' 같은 전략들을 적용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실천하지 못할 것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다시 반복되는 실패를 겪곤 한다.

하지만 작은 습관 전략을 적용하면 이런 실패를 겪지 않고 누구나 훌륭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

저자 말하는 작은 습관 전략은 아주 사소한 행위를 억지로라도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라 실패 기조차 힘들다'는 특성 덕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만들기 힘들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 저자는 '하루 팔굽혀펴기 1번'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일 년 동안 실천함으로써 운동습관을 만든 경험을 이야기한다.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운다. 작심삼일이라고, 새해 목표는 3일만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왜 그런 것일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작은 습관의 시스템을 이루는 토대는 '한심할 정도로 작은 걸음'에 있다고 한다. 곧 어떤 행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과 비교해 한심하게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1번' 운동습관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자신이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한심하게 보인다.

하지만 한심할 정도로 이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낀다. 또 팔굽혀펴기라는 행위와 이를 매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팔굽혀펴기 1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차츰 나도 모르게 운동량이 늘어나고 내 몸에 운동습관이 배이는 것이다.

저자는 습관을 완성하는 확실한 방법이 의지력이라고 말한다. "삶을 이끌어 가는 주된 전략으로서 의욕과 동기는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의지력에 비교하면 형편없는 선택이다. 의지력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 의지력을 너무나도 빨리 고갈시키고 만다. 작은 습관을 최소한의 의지력을 발휘해 최대한의 가속도를 얻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자신만의 작은 습관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1단계: 작은 습관과 작은 계획을 선택하라
제2단계: '왜?'라고 물어 핵심을

파고들어라

- 제3단계: 습관 신호를 정하라
- 제4단계: 보상 계획을 세워라
- 제5단계: 모든 걸 적어놓아라
- 제6단계: 작게 생각하라
- 제7단계: 높은 기대를 버려라
- 제8단계: 징후를 찾아라. 단,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 데이비드 흄도 "습관은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이다"라고 했다.

니븐 습관은 인생을 망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단 6:10).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으셨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눅 22:39)".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너무 높은 목표를 두고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출발하라.

중요한 것은 쉬운 것이지만 의지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목표가 높아지고, 영적 습관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59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여단 부회 장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상, 찬양평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평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관리의 목장경영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묘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전한 감동은 시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92원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원, 회임목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서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회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철호 저음 3800원 / 15,000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1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or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9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ONATA SE

Lease **\$158** +Tax or **0 Down** **\$23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954**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6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9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ANTA FE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43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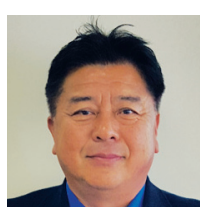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